



서울 골목에서 조우한 예술

새로운 일은 언제나 의외의 곳에서 벌어진다. 아트 신도 마찬가지로. 보다 실험적이고 신선한 예술은 서울 골목길에 숨어 있다.

ThisWeekendRoom

디스위켄드룸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42길 30



김나형 디렉터는 전속 작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시키고자 때로는 한계를 냉철히 판단하고 때로는 한계를 과감히 뛰어넘는 시도를 하다 보면 모두와 동반성장하는 인큐베이팅 플랫폼으로 거듭날 거라 믿는다. 한남동의 여러 갤러리 중 이곳의 개성이 또렷이 빛나는 이유는 진정으로 작가를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내부가 유달리 새하얗다. 갤러리 하면 떠오르는 상투적인 분위기를 견어내고 싶었다. 관람객이 오로지 작품에 집중하고, 그 면면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가장 화창한 날의 실외 조도에 맞춰 내부 조명을 자체 제작했다. 간혹 작가들이 발가벗겨진 기분이라고 비유하는데 작품에 자신이 있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진가를 잘 드러낼 장치가 아닐까 싶다.

1층과 지하를 잇는 수직 보이드가 눈에 띈다. 왜인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할 것만 같다. 요즘 젊은 작가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평면과 입체 등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매체를 탐구하는 일에 능숙하다. 따라서 실내 구조에 따라 작품을 변주하는 능력도 뛰어나다. 길이 6m 남짓의 수직 보이드는 호기심과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다. 이를 활용한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작가도 여럿이다.

이제 막 주목받기 시작한 젊은 작가를 주로 소개한다. 작가의 어떤 면을 면밀히 체크하나? 기본적으로 흥미로운 세계관과 독창적 재능의 유무, 작업을 향한 몰입도를 살핀다. 본능적인 감각으로 멋진 작업을 선보이는 신진 작가는 여럿이다. 동시에 자신이 속한 예술 생태계에 무관심하거나 전업 작가의 성실한 태도를 갖추지 못해 수년 사이에 사라지는 작가 또한 부지기수다. 그렇기에 본인의 가능성과 한계를 잘 알고 동시에 도전적이며 근면한 자세를 가진 작가를 주목하고 있다.

전시 기획을 할 때 절대 놓치지 않는 주안점은? 갤러리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생동하는 유기체이자 플랫폼이고 전시는 작가, 기획자, 큐레이터의 협력으로 완성되는 하나의 콘텐츠다. 그렇기에 작가의 현재 작업과 지금 갤러리가 아트 신에서 점유하는 요소 간 최적의 시너지를 낼 지점을 치열하게 연구한다.



